

[2024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한다

- 올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총 5기 추가 ... 총 11기 보급
- 수입 건초 대비 품질 우수하고, 가격은 41% 낮아
- 국내산 열풍건초 안정적 생산·유통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젃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초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대비 41% 저렴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입 건초 가격: 2023년 9월 거래 가격 기준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초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꾸준히 개선했다. 또한, 기존보다 시간당 건초 생산량(0.4톤 → 1.3톤)을 크게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운용 지침서(매뉴얼)를 완성했다.



<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

아울러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6기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국내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를 위해 축종별로 열풍건초 가축 급여 효과를 밝히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포장시설 보완 등 상품성도 개선했다.

2024년에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 시도에 총 5기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에 구축된 생산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도 연계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은 국내 생산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며 "국내산 건초 생산 기반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건초 수급이 이뤄져 가격 변동에 불안했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 및 유통 확대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사	정종성 (041-580-6748)

붙임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 및 유통 확대

□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개발 배경

- 젓소 및 한우 사육 농가의 건초 수요 증가
 -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및 TMR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한 건초 선호 증가

<한우·젓소 사육농가 향후 사용 희망 풀사료> (단위: %)

구분	건초	자가TMR	구입TMR	담근 먹이	풀사료펠릿	기타
한우 농가	39.4	23.0	12.0	15.1	3.6	6.9
낙농 농가	23.1	16.2	47.6	3.2	2.2	7.7

- * 국립축산과학원 풀사료 의식조사(2020).
- * TMR(섬유질배합사료) 공장에서 수입산 건초 사용 비율은 63.7%로 나타남.
- * TMR은 풀사료와 농후사료를 영양소 요구량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
- 연간 100만톤 정도의 건초가 수입되고 있음
 - * 양질조사료: 124만 8천 톤, 볏짚: 306만 7천 톤, 수입조사료: 99만 1천 톤

구분	국내 생산(천톤)				수입(B)	합계 (C=A+B)	자금률(%)	
	목초	사료 작물	볏짚	소계(A)			자금률 (A/C %)	볏짚제외 자금률
2015	177	623	2,720	3,520	909	4,429	79.5	18.1
2016	173	779	2,383	3,335	961	4,296	77.6	22.2
2017	169	721	2,169	3,059	1,228	4,287	71.4	20.8
2018	162	960	2,347	3,469	971	4,440	78.1	25.3
2019	159	997	2,587	3,743	944	4,687	79.9	24.7
2020	158	1,102	2,842	4,102	896	4,998	82.1	25.2
2021	153	1,146	3,016	4,315	903	5,218	82.7	24.9
2022	144	1,104	3,067	4,315	991	5,306	81.3	23.5

- 풀사료 수확철(5월경) 잦은 강우로 인해 대부분 논 재배로 생산되는 풀사료의 건초(수분함량 20% 미만) 제조가 어려움
- 풀사료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풀사료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 풀사료 수입 자유화: 한국-캐나다('24) → 한국-미국('26) → 한국-호주('28)

- 기상이변, 지정학적 위험 등 국제 정세에 따른 수입 건초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지속

□ 2024년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보급 계획

- 보급예정(누계) : 총 5개소 5대
- 2024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5개소 선정

시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개소수	1	1	2	1

* 사업비: 개소 당 2억7천, 국비 50%, 지방비 50%

□ 수입 조사료 가격

[단위 : 원 /kg]

초종	구매지역(도)수	최고 지역가	최저 지역가	평균가
티모시	7			70.65
1	2	687.94	607.64	647.79
프리미엄	5	649	786.5	717.75
슈프림	1	781	781	781
알팔파	6			666.38
1	4	654.5	616	635.25
프리미엄	5	759	649	704

- * 2023년 9월 거래 가격 기준(농협경제지주)
- * 부가세 10% 포함
- * 알팔파: 조단백질 기준 프리미엄은 20% 이상
- * 건초(짚류 제외): 조단백질 기준 프리미엄은 13% 이상

□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모식도

